

사우디·오만, 녹색산업 협력 확대 올해 상반기 수주·수출 15조 달성

환경부, 연간 목표 22조 가시화
사우디 상하수도 설계사업 등 쾌거
환경장관 “지난해 20조 넘을 것”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올해 상반기 녹색산업 수주·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며, 연간 기준으로 지난해 거둔 20조 원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사우디 및 오만 등지에서 협력 사업 등에 힘입은 결과라고 밝혔다.

4일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누적 기준 녹색산업 수주·수출 실적은 15조 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한 해 20조 4966억 원의 실적을 낸 것과 비교해 올해 들어 속도가 더 빨라진 것이다.

한 장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는 녹색산업 얼라이언스 중심으로 민·관이 원팀이 돼 노력한 결과, 상반기까지 15조 원의 수주·수출을 달성하는 성과를 도출했다”고 말했다. 또 “2023년 녹색산업 수주·수출 20조 원을 달성한 이후 올해엔 22조 원 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고 전했다. 연간 목표 달성이 가시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특히 오만의 해수담수화시설과 그린수소 생산시설, 사우디아라비아 상하수도 설계사업을 대표적인 성과로 꼽을 수 있다”며 “오만의 경우, 작년년부터 제1차 직접 방통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전방위적인 지원



한화진 환경부 장관(오른쪽 2번째)이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오만의 압둘라 알알리 환경청장과 면담하고 있다. 양측은 환경분야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환경부

을 지속했다”고 밝혔다. 또 “사우디 상하수도 설계사업 수주는 향후 본사업 참여로까지 이어지는 발판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말했다.

상반기 대표적인 성과로, 오만에서 수주한 해수담수화 사업(GS이니마) 및 그린수소 생산사업(삼성물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수주한 상하수도 설계사업(건화) 등이 있다.

GS이니마가 오만에서 수주한 해수담수화 사업의 경우, 당초 지난 2020년 12월 수주했으나 발주처의 부지 변경 요청으로 착공하지 못하고 사업이 중단된 바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 환경장을 단장으로 수주지원단을 오만에 파견해 살렘 빈 나세르 알 아우피 오만 에너지광물부 장관을 만나 해당 사업의 조속한 재개를 요청했다. 알 아우피 장관은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화답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또 오만을 그린수소 중

점 지원 국가로 선정해 사업 타당성조사, 고위급 및 실무급 수주지원단 파견, 오만 측 정부 인사 국내 초청 등 전방위적 수주 지원 활동을 벌였다. 그 결과 삼성물산, 포스코홀딩스 등 국내기업들이 오만 정부로부터 그린수소 생산 사업권을 획득해 투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 엔지니어링사인 건화는 올해 1월 사우디아라비아의 6개 권역 상하수도 확장 및 개선사업 중 3개 권역의 설계사로 최종 선정됐다. 국내기업이 사우디아라비아 상하수도를 설계함으로써, 후속으로 발주 예정인 건설시공 등 본사업(6조 원 규모) 입찰 참여에 국내 건설사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게 환경부 측 설명이다. 한 장관은 “앞으로도 산업을 밀착 지원해 목표 달성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4개 기술 ‘국가핵심기술’ 신규 지정 보호

산업부, ‘국가핵심기술 지정 고시’
기술발전 속도 대응, 핵심기술 재점검

정부가 원자력, 기계, 자동차·철도 분야 4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해 보호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5일 개정·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국가핵심기술이란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나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로 ‘산업

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다.

이번 고시개정에 따라 성장 잠재성이 높은 기술로 평가된 ‘원전 구조물 설계초과지진력 저감용 고무계열 면진장치 기술’, ‘TRISO-SiC 핵연료의 상압소결 및 고온산화 저항성 향상 기술’, ‘발전용 가스터빈 수소연소 설계 및 제조 기술’, ‘고속철도차량의 차체 설계, 해석 및 제조 기술’ 4개가 신규 지정된다.

반대로 보호 필요성이 낮아진 원자

력 분야 기술인 ‘원전 피동보조급수계통 기술’, ‘원전 증기발생기 2차측 원격육안검사 기술’, ‘신형 경수로 원자로 출력제어시스템 기술’ 3개는 국가핵심기술에서 해제된다.

아울러 반도체, 전기전자, 자동차·철도, 철강, 조선, 우주, 기계, 로봇 등 8개 분야 24개 기술은 기술범위가 세분화·구체화돼 변경된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국가핵심기술은 13개 분야 75개에서 13개분야 76개로 늘어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산재근로자, 빠른 직장복귀 지원”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60주년

근로복지공단은 4일 오후 서울 명동로얄호텔서울에서 사회복귀지원 관련 학계 전문가, 취업 지원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산재보험 6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재보험은 4대 사회보험 중 가장 빠른 1964년 도입돼 일하는 모든 사람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이번 기념행사는 산재보험 60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저출생·고령화의 노동시장 변화에 걸맞는 산재보험 사회복귀지원서비스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술토론회에서는 산재보험 사회복귀지원서비스의 발전과정과 산재의료 전달체계 강화방안, 소속병원의 전문 재활프로그램의 효과와 산재 시범재활의 의미 등 2개 세션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학계 전문가들은 산재보험 도입 이후 산재근로자의 70%가 직업에 복귀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산재보험 60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뉴스

하는 성과를 냈으나, 여전히 산재보험 제도가 현금 보상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제도 손본다

장애인고용공단, ‘국민정책디자인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4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법정 의무교육 6년을 맞이해 국민과 함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장애인고용공단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일반 국민 11명, 전문가 그룹과 함께 ‘2024 국민정책디자인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국민정책디자인이란 국민이 직접 정책과정에 참여해 혁신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는 사업이다. 이번 디자인단에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에 관심이 많은 사업체 교육 담당자, 장애인근로자, 일반 국민, 강사, 대학생 및 학계, 법정 의무교육기

관, 공공정책서비스디자이너 등 다양한 분야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국민정책디자인단은 이날 발대식을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워크숍, 토론회 등을 통해 2018년도부터 시행 중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제도를 위한 문제점,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서게 된다.

차정훈 장애인고용공단 고용촉진이사는 “국민정책디자인단을 통해 교육정책 개선에 많은 아이디어를 접목해 국민과 소통하는 직장 내 인식개선 교육 체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주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3만여개 사업장 816만여 명이 이수하고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한훈 “올해 사과·배 가격 상승 없을 것”

(농식품부 차관)

조생종 곧 출하... 농산물 물가 안정화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4일 사과 및 배 가격이 아직 많이 떨어진 상태라면서도 조생종(일찍 성숙하는 품종)이 곧 출하됨에 따라 안정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연내에 또다시 사과·배 값이 치솟을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식품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채소류가 농산물 물가의 안정세를 견인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3월 기상 악화로 가격이 높았던 채소류가 전월보다 11.9% 하락했다”며 “배추와, 대파, 풋고추 등 대부분의 품목이 하락하며 농산물 물가 안정세를 이끌었다”고 말했다. 또 “제철인 참외와 수박은 전월보다 각각 25.1%, 23.4% 하락해 5월보다 더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도 했다.

사과와 배 가격에 대해서는 “아직 강세이나 현재 작황이 양호한 조생종 사과 등이 출하되기 시작하면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올해 사과·배 생산량은 평년 수준으로, 현재와 같은 가격 상승은 (앞으로 당분간) 없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 차관은 “사과·배의 화상병 및 흑성병의 발생 면적이 전체 재배면적 대비 0.15% 수준”이라며 수



지난 상반기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 진열된 배 가격이 개당 5000원에 달했다. /뉴스

급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농식품부가 인용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농산물 가격은 기상 호전 등으로 전월대비 5.3% 하락했다. 특히 2~3월 기상 악화로 가격이 크게 뛰고 있는 채소류 값은 전월에 비해 상당 품목이 내렸다. 배추(-22.9%), 대파(-13%), 풋고추(-16.2%) 등이다.

농식품부는 여름철 고온·다습한 환경에 취약한 배추와 무 등 노지채소에 대해 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해 병해충 방제 및 기술 지도 강화에 나선다. 여름철 정부 가용물량으로 배추 2만3000톤(t), 무 5000t을 확보하고, 배추 예비묘 200만 주를 준비하여 재해 등 비상상황에 대처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전력거래소, 제1기 시니어 컬처리더 출범

“세대간 시너지 창출, 조직문화 발전”

한국전력거래소는 지난 3일 나주 본사에서 세대 간 시너지 창출과 균형있는 조직문화 발전을 위한 ‘제1기 KPX 시니어 컬처리더’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KPX 시니어 컬처리더’는 기존 운영하던 기관 조직문화 개선 추진체 ‘주니어 컬처리더(5년차 이하 직원 구성)’를 확장해 전 세대를 아우르는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임금피크제 대상 인원을 포함해 총 12명으로 구성해 출범했다.

이들은 향후 1년간 주니어 컬처리더와의 합동 크로스 멘토링, 번아웃 극복

코칭, 목적 달성 경험과 업무 노하우 공유, 서로가 원하는 직장내 에티켓 캠페인 등 다양한 소통 활동을 추진하게 된다.

송석돈 전력거래소 경영지원처장은 출범식에서 “새롭게 도입된 KPX 시니어 컬처리더가 공공기관의 세대 간 소통강화와 직원 주도형 조직문화 개선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시도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력거래소는 지난 6월 조직정밀 진단을 통해 직원 니즈 기반의 ‘KPX 조직문화 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협력, 건강, 책임, 혁신, 동기 등 5대 분야에 걸쳐 조직문화 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 중이다.

/세종=한용수 기자